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경축이동 제31권 43호(가해) 2011.9.18

[묵상]



<그림: 포도밭 일꾼들의 비유>

당신 없이 살아가는 이는
참 생명을 지니지 못한 이라고 하시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세상의 주인이신 당신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음이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오나
당신의 말씀 부끄럽게 여기오니
당신을 따르기 위해
나를 버릴 줄도,
나의 십자가 질 줄도 모르오니
당신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그 목숨을 구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피 흘려 당신을 따르진 못하오나
당신과 한 편임을 기뻐하고,
목숨 바쳐 진리를 증거하고 사랑을 고백한
한국의 순교자들을 자랑스러워하오나
다시 오시는 그 날
각자가 가진 그릇대로
당신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저희를
부끄럽게 여기지는 말아주십시오.

- 樞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에비자 교리반 레지오 마리에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베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빈첸시오회 ● 올뜨레아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낮미사 후 오후 1:00

-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김중호
특전미사	(생) 정혜홍 요셉
주 일	(연) 김인영 베드로, 조정림 요셉, 고준희 제임스, 권순봉 요안나, 엄익관 안토니오, 송종복 & 양옥분 켄마, 김세실리아 & 이피터, 오진 베드로, 김형태 야고보, 주막래 마리아
낮 미사	(생) 새영세자들 12명, 김풍길 바오로 & 김재희 모니카, 고정민, 정학순 발바라,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김정훈 프란체스카 & 김재영 프란체스코, 김세은 안나, 김명재 미카엘라 & 윤주용 미카엘, 윤철 아오스딩 & 윤덕용 다니엘, 정동호 하삼바오로, 토런스 북구역가정들, 대건회 가정, 제33차 남가주여성꾸르실로 참가자 & 봉사자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지혜서(Wisdom) 3,1-9

화답송 ○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내집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 2독서 로마서(Romans) 8,31-39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복 음 루카(Luke) 9,23-26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339	345	343
봉헌	257	269	269
성체	382	302	306
파견	245	343	사람나는 어부들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소개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하느님 말씀”이라는 주제로, 2008년 10월 5일부터 26일까지 바티칸에서 제12차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정기 총회가 열렸다. 이 정기 총회에서 얻게 된 풍요로운 결실과 함께, 하느님의 말씀에 관한 교황의 뜻을 하느님의 온 백성에게 알리고자, 베네딕도 16세 교황께서는 「주님의 말씀」(Verbum Domini)이라는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후속 교황 권고를 발표하셨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싶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사귀고 싶어서 우리가 당신을 알아챌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신다. 그 모든 신호가 곧 말씀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축약되는 이 ‘하느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만물을 지탱하는 기초이며, 인간도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우리의 갈 길을 갈 수도 없고 완성에 이를 수도 없는 것이다. 교황은 이 권고를 통하여, 살아 있는 그리스도교 영성은 교회 안에서 선포하고, 듣고, 기념하고, 묵상한 하느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아울러 하느님의 백성 전체와 목자들, 봉헌된 이들과 평신도들에게 성경과 점점 더 친숙해지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서론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물러 계시다.”

1.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물러 계시다.’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1베드 1,25; 이사 40,8 참조).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베드로 1서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당신 말씀을 전사하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알려 주신 하느님의 신비 앞에 서있게 됩니다.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이 말씀은,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말씀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사람이 되셨습니다”(요한 1,14).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여러 세기를 거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와 선포된 것입니다. 바티칸에서 2008년 10월 5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제12차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정기 총회는,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주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이름으로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시는(마태 18,20 참조), 아버지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만나는 깊은 체험이었습니다. 이 세계 주교대의원 회의 후속 교황 권고를 통하여 저는, 대의원 회의에서 나타난 풍요로운 결실과 함께 작성한 권고들을 하느님의 온 백성에게 알리고자 하는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교부들의 요청에 기꺼이 부응하고자 합니다.

<◆ 계속 >

준비된 순교, 준비된 배교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질문은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오늘은 하느님 신앙을 위해 목숨 바치신 우리나라 순교자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의 후예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인인지 묻고 싶습니다.

순교는 참 어려운 결단입니다. 낭만적으로, 감성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후미에(踏繪)'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본 에도(江戸)시대에 천주교 신자들을 배교시킬 때 사용했던 구리로 만든 성상(聖像)입니다.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 배교이고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밟고 지나갔는지 성상의 예수님, 성모님 얼굴이 다 닳아 없어졌답니다.

순교는 어려운 일입니다. 참 신앙을 살아온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며 벼를 위하여 목숨 바치는 사랑실천이 참 신앙입니다.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부모를 부정하며 그 가정에서 살 수 없고, 국가이념을 부정하며 그 나라에 살수 없듯이, 생명의 창조주 하느님을 부정하면서 생명을 부지할 이유가 없다는 믿음이 참 신앙입니다. 이런 참 신앙만이 순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배교도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준비된 배교입니다. 하느님을 찾지 않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를 먼저 걱정하는 삶, 자기 가정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서만 하느님을 찾는 삶, 재물과 명예를 지키려고 하느님도 포기하는 삶,

좋은 머리로 때로는 하느님을 이용하고 하느님과 거래하고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하는 삶, 이런 삶이 배교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신앙입니다.

요즈음 주일미사 참례자수가 대개 전체신자의 1/3 수준이랍니다. %의 신자들은 주일에 어디 가신 걸까요?

신앙인으로서 신자공동체에 속하고 그 의무를 다하는 일은 취미생활이나 친교모임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나누어 먹고, 우리도 목숨 바쳐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테니스를 치지 못하게 한다고, 자전거를 타지 못하게 한다고 목숨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매일 매일 목숨 걸고 하느님을 선택하는 치열한 여정입니다. 힘든 선택이지만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참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는 신앙선조들께서 목숨 바쳐 보존하여 물려주신 신앙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모릅니다.' 그 한 마디 말을 차마 못해 재산과 명예 모두 버리고, 멀쩡한 하늘 아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망나니 칼에 목을 내민 분들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자녀들에게 참된 인생길을 가르쳐 주게 할 소중한 신앙인 것입니다.

◆고찬근 루카 신부 /

서울대교구 성소국장

이번 주 전체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전지요 글라라	박희자 마리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김은지 릴리안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린스 남 3반

다음주 전체 봉사자

다음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은지 릴리안	남성철 베네딕도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김태형 가브리엘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금자 테레사
제물봉헌자			P.V. 3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재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전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9월 순교자 성월

◆ 백삼위 본당의 날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이동 :
오늘 주일(18일)은 한국의 백삼위 성인을 주보성인으로 모신 백삼위 한인성당 본당의 날입니다. 기념미사(낮 11시)와 새로 조성한 야외십자가의 길 14처를 봉헌하며 아울러 세례식을 통해 12명의 새로운 하느님의 자녀들이 탄생했습니다.

◆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종합예술대전

- 전시기간 : 9월25일(주일)까지 성당 문여는 시간에 전시
- 전시작품 : 유화, 수채화, 한국화, 민화, 사진, 꽃꽂이, 서예, 자수, 알공예, 도자기, 켈트, 시 등 그동안 백삼위 성당 교우들이 갖고 담은 아름다운 작품들이 화려하게 전시중입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 * 문의 : 이명털 라과엘 ☎(310)749-0278

◎ 새 영세자 축하합니다. ◎

◆ 세례식과 축하식

- 일시 : 오늘 주일(19일) 낮미사 중
- 새영세자 : 김명재 미카엘라, 이종수 마틴, 윤상균 그레고리오, 조인순 아이린, 하양숙 마틸다, 진영래 요한, 진은란 아녜스, 전정일 요한, 전호재 베로니카, 고동욱 루카, 전지용 가브리엘라, 전주용 미카엘라 (이상 12명)
- 세례식이 끝난 후 친교장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신영세자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 백삼위 신심단체 '1인1단체 가입' 캠페인 : 단체소개

본당 각 신심단체 활성화 및 회원가입 확대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일미사 후 '우리 단체에 오세요!' 소개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양업회, 요셉회, 대건회, 성모회, 자모회, 안나회에 이어 다

음주일은 레지오마리에 차례입니다. 앞으로 남은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9월25일 : 레지오마리에 ▶ 10월2일 : 빈첸시오
- ▶ 10월9일 : 배론청년회 ▶ 10월16일 : 성령기도회

◆ 남가주 제33차 여성 꾸르실로 참가자들을 위한 기도

- 일정 : 9월22일(목)~25일(주일), 엘 카텔로 피정의 집
- 수강자 4명 : 금유미 크레센시아,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 스탈라, 김명재 아가다
- 봉사자:엄혜은 도로테아, 권순길 체칠리아, 김미현 크리스틴
- 파견예식 : 22일(목) 오후 1시 성체조배식
- 문의 : 율프레아 간사 이명순 크리스티나 ☎(310)749-0276

◆ 성 빈첸시오 드폴 사제 기념일 미사

- 일시 : 9월27일(화) 오후 7시30분
- 리셉션 : 미사후 강당
- 명예회원과 일반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문의 : 박흥룡 요셉 빈첸시오 회장 ☎(310)283-5879

◆ 소년 소녀 레지오 단원 모집

- 작년 9월에 창단된 백삼위 주일학교 소년 레지오 '그리스도의 어머니' 프레시디움(pr.)에서 새 단원을 모집합니다.
- 자녀들이 레지오 활동을 통하여 본인의 성화를 이루며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와 신앙활동을 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부단장 ☎(310)709-3343

◆ 본당의 날 기념 친환경 녹색 장바구니 전신자에 선물

- 본당 로고와 설립30주년 기념주제가 예쁘게 인쇄된 친환경 녹색 장바구니를 전신자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익명의 교우께서 기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9월18일(주일) : '본당의 날'을 맞아 소공동체에서 전신신자들에게 떡과 점심을 대접합니다.
- 9월25일(주일) : P.V. 1반(불고기덮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권태만 김관기 김양금 김영길 김옥찬 김원모 김학겸 노혜숙 문충한 민순선 박광자 박인식 박종민 송재훈 윤 철 이귀란 이명선 이영희 이일길 이태옥 이현주 장춘수 전시웅 정규숙 정동호 정해홍 정훈모 조혜정 주대종 채양석 최영신 하정화 한연만 홍광선 이크리스	합계 : \$4,010
미사헌금 : \$3,286		
성전헌금	권태만 김관기 김양금 김영길 김원모 노혜숙 문충한 민순선 박광자 박인식 이귀란 이영희 이현주 장춘수 정규숙 정동호 정해홍 정훈모 조혜정 주대종 채양석 최영신 하정화 한연만 홍광선	합계 : \$2,190

공지사항

◆ **주일학교 오픈하우스 및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기도의 밤**
새학기를 맞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과 주일 학교 오픈하우스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못오실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성인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꼭 참석해주세요.

- 일시 : 9월23일(금) 오후 7시
- 준비물 : 목주, 성경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 **초중고 교과서에 동성애자 관련 내용 게재 반대법안 서명**
캘리포니아주 초중고교 교과서에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호감있게 넣는 주상원법안 SB 48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자녀교육을 우려하는 학부모연합회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로 유권자등록을 하신 성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서명일시 : 이번주일 특전미사와 주일미사 후
- 서명용지 : 성당 현관에 비치(1장에 2명까지 서명 가능)
- 서명자격 : 만18세 이상, 시민권자로 유권자 등록을 한 분
- 문의 : 새라 김 sarahspring2009@gmail.com

남가족 소식

◆ **명 프란치스코 신부님 은퇴하셨습니다.**

한국인 가톨릭신자들을 위해 58년간(한국20년, 미국38년) 헌신적인 사제생활을 하신 명 프란치스코 신부님(골롬반 선교회)께서 최근 은퇴하셨습니다. 고국 아일랜드로 돌아가신 명신부님의 한국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감사드리며,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 문의 : ☎(858)527-2603 이창섭 어거스턴

◆ **성 골롬반 청소년 선교회원 모집**

- 대상 : 9~10학년 재학중인 고등학교생
- 오리엔테이션 : 9월18일(주일) 오후 4시
LA 성 아그네스 성당 한인회관

* 지도 : 최용훈 신부 * 문의 : ☎(323)734-4946

◆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Season 2**

더욱 새롭고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가톨릭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 10월22일(토) 오후 5시~10시
- 대상 : 남자 25세 이상 미혼 가톨릭신자
여자 23세 이상 미혼 가톨릭 신자
- 장소 : 성 토마스성당(412 N. Crescent Way Anaheim)
- 회비 : \$50
- 신청마감 : 10월9일(주일) 선착순 남녀각각 30명
- 문의 : 김민정 첼리나 ☎(213)247-4341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전하는 믿음속에 성장하는 백성위"

소공동체 9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정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원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이순자 비비안나 834-8856 9/2(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박선화 안나 325-3888 9/10(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0369 9/9(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진영태 요한 970-2037 9/18(주일) 오후 4시30분 델손팍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박명순 안나 720-2876 9/16(금) 오전 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이희정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송루카 송바로로 320-0855 9/16(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김경수 헬레나 634-6923 9/8(목) 오전 11시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송미카엘 540-9032 9/10(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권오상 바오로 257-8416 9/9(금)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박진수 스테파노 710-8078 9/10(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정은주 세실리아 377-6328 9/9(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배재일 미카엘 544-9460 9/9(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9/9(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이귀란 아네스 617-3568 9/13(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다음 주 단체 모임

9월 사목회 오후 1시

순교와 자살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젊은이들의 정정당당한 경기를 통해 아름다운 축제로 끝났다. 자신의 경기 종목을 따라 잘 다져진 몸매와 높게 멀리 빠르게 움직이는 선수들을 보면서, 창조주께서 주신 귀한 몸을 가장 잘 다듬어, 자신의 달란트를 값지게 쓰는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중 유난히 눈에 띄는 선수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선수였다. 종아리뼈가 없어 보철 의족을 하고, 육상에서 가장 힘들다는 400m 예선을 통과하는 모습은 경이로웠다. 1,600m 계주에서는 첫주자로 나서서 팀을 결승으로 이끄는 놀라운 모습도 보였다. 그는 “나는 인생에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지금 내 위치에 오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로 자기의 처지를 축복이라 하고,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하였다. “큰 사랑은 감사하지만 장애인 아닌 그냥 육상선수로 봐 달라”는 말에서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비장애인과 어깨를 겨루는 그의 당찬 의지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좌절과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특히 많은 인기를 누리던 유명 인물이나 지식인, 지도자들도 목숨을 스스로 끊어 현실과 고통과 책임에서 도피하여, 극단적인 생명 경시의 분위기를 야기하고,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시키니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죽을 용기로 이 어려운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다면, 아니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좀 헤아려서 시간을 두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의지를 길러간다면 극복할 수 없을까? 이 장애인 선수가 자기를 극복하는 용기와 끈기, 감사하는 마음을 모두의 가슴에 새겨야겠다. 우리의 순교 성인들은 깊은 신앙으로 하느님을 다랐기에, 모진 박해를 받고 가난과 궁핍한 삶을 살면서도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았고, 선참후계(先斬後啓)의 시퍼런 칼날 앞에서 웃으며 순교하시었으니, 그들의 의지와 신념에 머리가 숙여진다. 그분들은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착하게 살다가 복된 죽음(善終)을 하신 것이다. 순교자 성월이 다하기 전에 순교 성인들의 행적을 찾아보고 읽으면서, 무디어진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야겠다.

◆정경수 대건안드레아 / 수필가

이건 알아주세요

주일미사에 빠졌으면서도 뻔뻔스럽게 성체를 영하는 신자들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할 듯하여 진의합니다. 슬쩍, 성사를 봐야한다고 알려주어도 못들은 척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속이 상합니다.

문득, 미사 중에 미용사는 사제의 머리 모양 탓에 분심이 들고 간호사는 팔뚝의 혈관만 보이더라는 얘기가 생각납니다.^^ 미사 중의 분심은 모두 사탄의 농간입니다. 미사는 ‘매우 특별한 나’를 위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때문에 상대를 위한 마음이라 하더라도 미사 중에 상대의 허물에 마음이 쏠리는 일은 ‘내 손해’라는 점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에 의탁하는 완전한 믿음이 헐거워지지 않도록 내 마음부터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어긋나고 모자란 누군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사람, 의인의 기도가 온 세상만큼이나 귀합니다. 열 사람의 온전한 믿음이 세상을 구합니다. 주일 미사에 빠지는 대죄를 짓고도 무심하고 ‘뻔뻔스럽게 성체를 영하는’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마저 외면하지 않는 주님의 아픔을 위로해 드리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강력히 경고합니다. 제멋대로 해석하여 그분의 사랑을 함부로, 막되게 이용하는 일은 죄입니다. 주님의 자비심을 이용하려는 못된 심보는 만용일 뿐입니다. 대죄를 짓고도 주님 사랑을 기만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 요즘 아기 백일에 삼신상을 차려서 삼신할머니께 비는 것이 유행입니다. 우리의 전통풍습이니 이벤트 행사로 해주고 싶습니다. 기도이니까 괜찮지요?

하도 해괴한 일이라 사전을 봤습니다. ‘삼신상’이 “아기를 낳은 뒤에 삼신에게 올리는 상. 쌀밥과 미역국을 차려 놓고 아기의 무병장수를 빈 뒤 산모가 먹는다”라고 설명했더군요. 자식 사랑을 백번 이해한다해도 웅납되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는 그분께 역겹고 사악한 행위라는 걸 진정 모르시나요?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느님을 믿되 잡신과 더불어 바알과 함께 섬긴 죄에서 비롯된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것이다”(예레 10, 3). “깨끗하지 못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지내려느냐?”(예레 13, 27)시며 “바빌론의 죄 때문에 함께 죽지 마라”(예레 51, 6)고 호소하는 그분의 가슴앓이를 느끼기 원합니다. 이벤트의 너울로 가린다고 그분을 속일 수 없습니다. 헛된 생각을 잘라내십시오.

◆도움말 : 장재봉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